

『혼불』에 나타난 가족-모티프의 풍속화

-죽음·결혼·탄생을 중심으로-

이혜경*

1. 서론
2. 보이지 않는 윤희의 고리-죽음
3. 절망 혹은 새로운 시작-결혼
4. 정령의 신화 그리고 삶-탄생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90년대 한국문학이 거둔 최대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최명희의 『혼불』에 나타난 가족-모티프의 풍속화 방식을 죽음·결혼·탄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혼불』은 3대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매안 이씨 가문의 이야기가 중심축이다.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인의 의식과 그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혼불』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매안이씨 가문의 영교성쇠가 구축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결혼 그리고 새로운 탄생은 『혼불』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혼불』에서 이러한 죽음·결혼·탄생의 풍속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켜 그들 고유의 풍속을 만들어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풍속은 가족관계에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즉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풍속을 전승하게 되는 것이다.

『혼불』에서 죽음은 청암부인과 **홍술**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그리고 청

1) 건양대 교수.

암부인의 죽음은 종손부 허효원에게로 그 몫이 옮겨가 죽어도 죽지 않는 윤희의 고리를 형성한다. 『혼불』의 또 다른 계층은 흥술의 죽음은 '투장'이라는 죽음의 풍속을 등정시켜 좀더 치열한 신분의 차이와 갈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려는 시대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이들이 지키려는 가족의 윤리와 도덕이 항상 존재한다. 핏줄의 보전과 가문의 순수성을 지속하기 위한 의미가 강한 『혼불』의 결혼은 불행을 암시, 그 불행 속에서 굳건히 서는 여성 가장과 그 여성 가장 때문에 부유하는 식민지시대의 가장의 모습이 부각되는 결혼이다. 또한 해원의 한 양식으로 등장하는 망혼제는 결혼의 색다를 의미의 풍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흠월정의 풍속과 함께 보이는 『혼불』의 탄생은 가족의 구성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생명의 자양분으로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고, 신분의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혼불』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빛어지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과 당대의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가족이라는 창을 통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여과하고 있다.

1. 서론

최명희의 『혼불』은 삼대의 여성(청암부인-울촌대-허효원)을 중심으로 한 매안이씨 가문의 이야기이다.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탄생과 결혼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인의 의식과 그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혼불』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매안이씨 가문의 영고성쇠가 구축되고 있는 작품이다.¹⁾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의 작가가 여성이며 여성작가중인물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족사소설과는 강조점이 다른 가족사가 서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족사소설은 남성중심의 서사물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이 각 세대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 각 세대를 대표하며 당시대 상황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혼불』은 가족-모티프를 토대로 한 가문의 여성 삼대에 걸친 일대 로망이라는 점에서 여느 가족

1) 김치수, 「두 개의 혼불-최명희와 『혼불』」, 『동서문학』, 1999년 봄호(동서문학사, 1999), p.242.

사소설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여성중심의 가족사-서사물이다. 때문에 이들 작품은 기존의 가족사소설들과는 달리 부(夫) 중심의 부자갈등을 서사하기보다는 부(婦) 중심의 부부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계급, 계층이나 제도, 역사, 사회적인 문제도 여성의 시각으로 보여지며, 세대의 변화보다는 죽음, 결혼, 탄생이라는 전승의 풍속이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어느 시대건 모든 사람의 문제였다.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 최대의 문화사가인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는 『중세의 가을(Herbst des Mittelalters; Le Déclin Moyen Age, 1919)』에서 삶의 쓰라림에 대해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보다 5세기 가량 더 젊었을 때,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지금과 현저히 다른 모습과 윤곽을 띠고 있었다. 불행에서 행복까지의 거리도 훨씬 멀게 여겨졌고, 모든 경험은 기쁨과 고통이 어린아이의 정신 속에서 갖는 것 같은 그런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강도를 띠었다. 매 행동과 매 사건들은 언제나 일정한 의미를 갖는 형식에 둘러싸여졌고, 또 그 형식들은 거의 의식의 높이에까지 올려졌다. 탄생과 결혼과 죽음 등의 주요 사건들은 성례를 통해 신비의 후광을 띠었고, 여행·직무·방문 같은 대단치 않은 사건들조차도 강박식이나 의례니 서식 따위를 동반하였다.²⁾

그는 “사람들은 죽은 것, 몰락해 가는 높고 강한 문화에 등을 돌리면서, 자신들과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린다. 문제는 더 이상 쇠퇴해 가는 중세의 문제가 아니라 르네상스의 문제이다.”³⁾라고 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출현에 시선을 맞추면서도 이러한 새

2) 요한 호이징가,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문학과지성사, 1997), p.11. 『중세의 가을』은 뒤에서 언급하게 될 프랑스 아날학파의 일원이자 ‘집단 정신사’의 개척자인 필리프 아리에스에게도 ‘죽음’에 관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P.아리에스, 이종민 역, 『죽음의 역사』(동문선, 1998), p.113 참조.

로운 시대는 곧 중세의 혼에서 비롯되었다⁴⁾ 인술을 남긴다.

호이징가의 지적처럼 결국 현재의 발판은 과거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현재는 오래 묵은 과거의 거울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련의 방식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의 계승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문학작품을 현대의 작품을 대할 때와는 다른 눈으로 읽는다. 설령, 역사적 흥미와 심미적 관심만을 가진 이라도 그들이 자기의 시대와 생활감정과 생활목표에 아무런 직접적 관련을 가지지 않는 과거의 작품과, 자신의 생활감정 자체에서 우리나라왔으며 바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추구하는 오늘의 작품 사이에 측량할 길 없는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⁵⁾ 현재의 작가들이 과거를 배경으로 창작하는 대부분의 작품들 속에서 재해석하는 전래의 풍속이야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의 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살고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결국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남과 여의 결혼으로 야기되는 생명의 잉태는 새로운 가치를 돋우게 하는 영양소로 이러한 끊임없는 삶의 연속에서 또 하나의 풍속을 남긴다.

『혼불』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삶의 양식은 그 스스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재현되는 인물들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풍속들이야말로 꾸밈이 없는 그들의 삶 자체요, 생활이다.

수많은 민족이 지닌 습속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정도로 불확실한데다가 무한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 문명의 전부에 걸치는 커다

3) 위의 책, p.401.

4) *Ibid.*

5) A.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공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현대 편』(창작과비평사, 1996), p.3 ; 개정판으로는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옮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자연주의와 인상주의·영화의 시대-』(창작과비평사, 1999), pp.13~14 참조.

란 의론에 대해서는 때로 인간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것이 되면서 어떤 계기에서 모여 일치가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⁶⁾ 특히, ‘죽음’으로 초래되는 질서의 파괴와 복구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통찰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지닌 이들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대두되고 아울러 갈등이 시작되는 구조를 읽게 하며, 그러한 결실이 어우러진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영원한 윤회의 고리를 만드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결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족사소설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구성과 해체,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은 세대에서 세대로 새롭게 이어지며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하에서 『혼불』에 등장하는 죽음·결혼·탄생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조의 서사를 통해 그들 고유의 역사적 풍속과 함께 내면에 숨어 있는 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보이지 않는 윤회의 고리—죽음

여기 전설이 있다. 미다스 왕은 오랫동안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현자 실렌을 숲 속에서 사냥했으나 그를 잡지 못했다. 왕이 마침내 그를 수중에 넣었을 때 왕은 물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이나고. 그 마신은 꼼짝도 않으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이 강제로 분자 꺾걸 웃으며 대답하였다.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너는 내게서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모르는가? 최상의 것은 자네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네.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 것도 아닌 것이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죽어버리는 것이네.”⁷⁾ 죽음이 없다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6) G.비코, 이원두 옮김, 『새로운 학문』(동문선, 1997), p.131 참조.

7) 프리드리히 니체, 김대경 옮김, 『비극의 탄생/바그너의 경우/니체 대 바그너』

삶이 삶이기 위하여, 즉 인생을 존재케 하기 위하여 죽음이 불가결한 실상인 한,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죽음' 또한 생명현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⁸⁾

죽음은 변화되었고,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변화되었다.⁹⁾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 대편류는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경계에서 더욱 은밀하고 은폐된 주동인, 즉 '집단적 무의식'에 좌우된다. 그것은 자아의식과 상승하고 싶은 욕구, 또는 집단적 운명에 대한 감정·사회성 등 기본적인 심리의 위력을 활성화한다.¹⁰⁾ 『혼불』에 등장하는 죽음의 도식처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상정이 형식화한 작품도 드물 것이다.

허나……목숨만큼 화려한 것은 없네……천산(千山)을 헐어서 하해(河海)를 메꾼대도……목숨이 비어 있는 자리는 메꿀 도리가 없어.¹¹⁾

생명에 대한 집착은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위 인용문과 같은 청암부인의 말은 생명에의 집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에의 회한이 다분히 어려있는 자조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염려와 걱정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작가는 이런 청암부인의 얼굴에서 아무런 애증도, 설움도, 회한도 어려지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이러한 경지를 넘어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또한 부질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혼불』에 서사되는 죽음의 집단적 무의식의 흐름을 다소 긴 호흡으로 인용해 본다.

(청하, 1991), pp.45~46에서 인용. 원전은 소포클레스의 *ódiplus auf Kolonos*, 1224행 이하.

8)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열화당, 1987), p.344.

9) P.아리에스, 이종민, 앞의 책, p.265 참조.

10) 위의 책, pp.265~266.

11) 『혼불』 3권, p.105.

“누구 불러 드릴까요?”

(중략)

“……없어……아무도.”

(중략) 청암부인이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다.

“누구 말씀이신가요?”

(중략)

안타까움이 방안을 짓누른다. 침묵이 어둡게 무너진다.

“……강모……”

(중략)

인월택은 청암부인 가까이 기울이고 있던 상체를 힘없이 뒤로 주저 앉히고 만다. 그네는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강모는 이미 만주로 가 버리었다.

(중략)

얼마나 그리고 있었을까.

무겁게 감은 청암부인의 왼쪽 눈꺼에 찢든 눈물이 배어 났다. 그것은 맺힌 같은 진액(津液)이었다. 차마 흘러내리지 못한 채 눈 언저리에 엉기어 있기만 하는 그 눈물은 무슨 응어리 같기도 하였다.

그날 밤, 인월택은 종가의 지붕 위로 홀렁 떠오르는 푸른 불덩어리를 보았다. 안채 쪽에서 솟아오른 그 불덩어리는 보름달만큼 크고 투명하였다. 그러나 달보다 더 투명하고 시리어 섬뜩하도록 푸른 빛이 가슴을 칠렁하게 했다.

청암부인의 혼(魂)불이었다.

어두운 밤 공중에 우뚝한 용마루 근처에서 그 혼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윽고 혀를 차듯 한 번 출렁하고는, 검푸른 대밭을 넘어 너홀너홀 들판 쪽으로 날아갔다.

(중략)

한 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멀고 먼 길을 이렇게 홀연히 떠나는 그 불덩어리를 올려다보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네는 효원이었다.

(중략)

효원은 사라지는 불꼬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을 조이며 숨을 죽인다. 마치 흡월정(吸月精)을 하던 때와도 같은 무서운 정성으로 그네는 청암부인의 혼불을 받아들인다. 한번 들이마신 그 기운이 행여 새어나갈까 하여 그네는 죽은

듯이 고요히 숨을 참는다.

드디어 그녀는 온몸에, 실핏줄의 꼬뜨머리에까지 청암부인의 낮이 파도 물 마루보다 아찔하고 아득한 기운으로 차 오르며, 그녀는 숨이 가빠져, 그만 등 실 허공으로 떠오르고 만다.

이제 그녀는 청암부인을 낳을 것이었다.¹²⁾

지극히 극적이기도 한 이 인용문은 『혼불』¹³⁾의 제목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청암부인과 인월댁, 그리고 효원은 자신이 감지하는 자아의식과 그 발현에 전혀 다른 대응으로 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암부인의 핏줄에의 그리움, 인월댁의 종가의 종주를 떠나보내는 안타까움과 두려움, 그리고 효원의 애뜻함과 순응과 대물림에의 능동적 대응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죽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은 하나의 변형일 따름이라는 확신(적어도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¹⁴⁾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서 청암부인의 보이지 않는 윤희의 고리가 그야말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청암부인에게서 효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 『혼불』 3권, pp.106~112.

13) ‘혼불’은 모양은 둥그랗고 크기는 종발만한데, 빛살 없는 푸른색이라고 한다. 이 혼불이 인간의 몸 속에서 빠져나가면 적어도 몇 시간 안에 그 사람은 죽게 된다. 또 아무리 길게 잡아도 사흘 안에는 초상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나가는 혼불은 다른 남의 눈에 뜨이는 것이다. 어두운 밤 어느 집 어느 지붕 위로 홀렁 가뻐이 떠오르는 혼불을 보고 사람들은 저 집에 초상이 나리라는 것을 짐작 하곤 하였다. 어떤 사람의 몸에 혼불이 있으면 산 것이고,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혼불은 목숨의 불, 정신의 불, 삶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의 불이기도 하다. 한길사 보도자료(1996.12.6), p.6 참조.

14) 베르나르 포르, 김주경 역, 『동양종교와 죽음』(영림카디널, 1997), p.81.

후읍.

그 순간 청암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도 따라서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그네의 메마른 몸 속으로 한번 빨리어 들어간 숨은 다시 새어 나오지 않는다.

울촌댁이 황급히 몸을 기울여 청암부인의 숨소리를 들어본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 옆에 앉은 효원이 백지에 쓴 햇숨 한 조각을 청암부인의 인중 위에 송구스러운 기색으로 얹어 놓는다.

이 무슨 참람한 일이나, 내가 할머니님 절명을 확인하다니, 내 이 못할 짓을 어찌 용서 받으리.

효원은, 새어 나오는 흐느낌을 누르지 못한다. 방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숨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깃털보다 가벼워 스러질 것 같은 햇숨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부인은 숨을 거둔 것이다.

아직도, 내쉬지 않은 숨이 몸 속에 살아 있을 것이언만, 그네는 아무런 말한 마디 따로이 남기지 않고 눈을 감았다.

아이고오, 아이고오오.

이기채가 곡성을 터뜨렸다. 울촌댁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았다.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울촌댁 옆에서 효원이 호곡한다.

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이다.¹⁵⁾

혼은 합리적이라든가 이념적인 차원과는 무관하다.¹⁶⁾ 하지만, 혼의 육탈로 인한 죽음은 모든 이에게 경건한 전율을 일으키게 한다.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진다. 죽음은 또한 한 세대를 아우른다. 이렇게 해서 한 세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가족사소설이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이념 가운데 하나가 구세대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새로이 움트는 사회에 대한 반응을 공개하는 것¹⁷⁾으로 본다면 『혼불』에서 청암부인의 죽음은 너무나 이에 적절한 이

15) 『혼불』 3권, pp.121~122.

1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일지사, 1995), p.380.

17) Yi-ling Ru, *The Family Novel*, Paper Lang, 1992, p.7.

론적 차용의 경우가 될 것이다.

죽음은 가족을 새롭게 결속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부터 이어 내려오는 관혼상제는 한 가족의 전통적 의식을 이루는 문화적 소산이었다.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모습에서 ‘가족’이라는 의미에 함유된 작은 사회의 위대한 힘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청암부인의 죽음이 이렇듯 모든 가족 구성원의 축복·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속에서 고려되는 것이라면 이들과 양면적 대립을 보여주는 거명골의 또 다른 죽음은 상당히 비극적인 시작의 과정을 거친 채 전개된다. 거명골의 홍술의 죽음이 그것이다.

거명골의 홍술은 죽기 직전에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며 양반에 대한 사념의 단초를 드러낸다. 우리의 전통적인 명당발복의 습성을 보여 주는 이 대목에서 홍술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 평생의 한을 쏟아 붓듯 유언을 하게 된다.

“이제 나 죽으면 투장(偷葬)하여 달라.”

고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들 만동이와 며느리 백단이에게 유언하였다.

투장. 그것은 밀장(密葬)이었다.

“나중에 파기 좋게……기양 아무 디나 양지 짝에 묻었다가……내 살이나 다 썩그던……뻥다구 대강 취레서……저 육에……매안에……누구 초상이 나면……그 때……살찌기……암도 몰르게……세 산소 옆구리 파내고……거그다……거그다 물어 도라…….”¹⁸⁾

힘겨운 숨을 몰아 쉬며 메마른 입술을 가까스로 달짝이여, 한 마디 한 마디씩 끊어지는 목소리로 내뿜은 처절한 유언은 죽음에 이르러서 가능한 절규에 다름아니다. 소원은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홍술의 죽음이 있은지 4년이 지나도록 적당한 투장의 장소를 찾지 못한 만동이와 백단네는 무겁게 덮인 흙을 걷어 내 개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18) 『혼불』 5권, pp.290~291.

홍술의 유골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당골네인 백단이는 은근히 다른 동네 당골한테로 마실도 가 보고, 혹시 어디 명당 있다는 말 나지 않았는지, 사람들을 만나면 이리저리 돌려서 소문 속을 떠보기도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실 당골네는 신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양반들이다. 다만, 하는 일의 성격상 양반들의 은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남모르게 문복을 하거나, 곳을 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중의 안부인과 친 동기처럼 마음의 흥금을 주고받게 되면서 그 집안의 속사정을 소상히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조상의 산소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보면, 그 좋고 나쁜 내역들도 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골네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때를 보아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의 조상의 유골을 수습하여, 그 명당자리 묘의 옆구리를 파내고 뼈몽치를 그 속에 던져 넣은 다음 감쪽같이 다시 흙을 매워 놓고는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투장이었다.¹⁹⁾

그러나, 백단네에게 그러한 기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어찌하라.

쉬혼에 낳은 아들 만동이를 장가들여 다시 그 아들을 본 홍술이 일흔도 훨씬 넘은 머리털을 허이영게 높이고 숨이 진지 벌써 여러 해.

삼 년 지나 사년 지나 어느 덧 세월도 흐르는데, 아직까지 마당한 곳에 그 유골을 옮겨 드리지 못한 만동이는, 아버의 한(恨)도 한이지만, 제 한세상 앞에 놓인 천골의 천함과,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또 다시 할아버지와 아버가 그러했듯 무부의 길을 터덕터덕 걸어가야 할 어린 놈의 허깨비 같은 생애가 뺨골에 맺혀서도, 부디 어서 아버의 뼈다귀를 질척하고 검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고 고실고실한 양지넉의 해 바른 흙 속에도 안장하고 싶은 안타까움에 늘 가슴이 짙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좀체로 쉽게 오지 않았다.²⁰⁾

19) 『혼불』 5권, pp.292~294 참조.

봉분에 우복한 때와 잡초를 가만히 어루만지는 만동의 심정은 이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물화일체의 모습을 그려낸다. 뽑아내야 할 잡초임에도 선뜻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 생전 한 번도 잡아 본 일 없었던 것만 같은 아버지의 손을 잡듯, 풀포기를 어루며 다듬기만 한다.

만동이의 소원도 어느 새 도덕적인 일탈감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아버지의 유골을 새로 모셔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것은 이미 내적인 신분의 자각과 그에 따른 탈출의 동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심적인 동경의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그 명들어 검은 물 속에 아직도 무겁게 잠겨 있는 아버지의 뼈를 하루라도 빨리 건져 내, 좌청룡 우백호가 번듯한 양지넙 고실고실한 유택에다 새로 모셔 설움도 원한도 다 씻어 내고 오래오래 편안히, 고이 잠들도록 해 드리고만 싶은 것이 만동이의 소원이었다. 그것도, 이승에서는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양반의 서슬 푸른 혼백과 동무하며 노닐며 나란히 누워.

그러자면 그길은 오직 투장밖에 없었다.

그것도 묵은 명당이 아니라 지금 막 쓴 새 자리 새 명당이라야만 했다. 오래된 자리는 비록 명당이라 할 지라도 이미 발복을 해 기운이 다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²¹⁾

작가의 표현처럼, “그런 중에 한 해, 두 해, 세 해가 갔다”(『혼불』 5권, 319면)는 시간의 흐름은 역설적으로 이를 적절히 반영한다.

작년 세안 동짓달, 동지를 바로 앞둔 어느 날 만동이는 드디어 청암 부인의 병세가 지독히 위독하여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을 듣게 된다. 가슴의 밑바닥에서부터 육중한 힘으로 밀고 올라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회열감 속에서 만동이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는 벽찬 감동을 받게 된다. 만동이와 백단은 음양이 달라 투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어차피 도적질이라는 마음으로 투장을 결

20) 『혼불』 5권, p.297.

21) 『혼불』 5권, pp.300~301.

심한다. 결국, 투장은 표면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진실은 여지없이 밝혀져 투장의 주역들은 크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처럼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은 청암부인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청암부인의 죽음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홍술의 죽음은 무지개를 잡지 못하고 굴절되고 만다. 홍술은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은 프리즘에 굴절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불』은 죽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절차와 의식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의 몫을 내밀히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혼불』은 ‘죽음’을 문학적인 모티프로 서사화하여 가족의 운명을 승화시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암부인의 장례절차와 장례 모습은 길고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절차와 장례 모습의 상세한 묘사는 예부터 장례식에 의해 유지되던 가족의 범주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죽음’에 대한 우리 고유의 다양한 시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음미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세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례식이고, 또 하나는 삼년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이후에 집안에 있는 사당, 그리고 묘지나 절 등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이다.²²⁾ 이러한 행위들은 죽은 자의 ‘부재’를 만회하려는 산 자들의 노력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오라, 혼백이여’를 부르짖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정조를 되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윤회의 고리를 형성한다.

22) 베르나르 포르, 김주경 역, 앞의 책, p.37.

3. 절망 혹은 새로운 시작-결혼

사람들은 예부터 결혼을 중시했다. 우리나라 역시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죽으면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된다는 독신 금기 사회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²³⁾ 그리고 그 결혼은 조선 양반계급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제도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들에게 결혼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신분유지의 요건인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신분제 철폐된 오랜 뒤인, 이 작품의 실질적인 시작 시대적인 1936년에도 변함이 없다. 『혼불』에서 양반가문 여성의 결혼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가계를 계승할 남아를 출산하며, 가문을 영속시키는 지극히 실용적인 사회제도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기능으로서의 그 정체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실 결혼은 즐거움과 기쁨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쁜 바, 잔치다. 잔치는 경사스러운 행위의 또 다른 집단적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그에 따르는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혼불』에서는 다채로운 결혼의 모습이 등장한다. 우선 제1부 「흔들리는 바람 1」의 첫 제목이 ‘청사초롱’이다. 이쁜 바, 육례의 첫번째 의식이 이 부분에서부터 진행 된다. 그리고 이 짧은 글 줄 속에 이야기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은 결혼의 구체적인 모습이 선연히 등장하는 곳은 아니다.

정작 오늘은, (중략) 사람들이 안채·사랑채·뒤안·부엌·앞마당·중마당·마루·대청 할 것 없이 그득그득 들어차 오히려 더욱 들떠 있었다.²⁴⁾

23)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가족학』(하루, 1993), p.141.

24) 『혼불』 1권, p.15.

이 인용문 이후에 상당한 분량의 전통적인 혼인예식 장면이 묘사되는 데, 정작 아쉽고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면, 혼담이 오가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일체 생략된 점이다. 물론, 소설이 이러한 서사의 기능까지 수행할 의무는 없으나, 『혼불』에서 매겨지는 긍정적 평가의 일부가 풍속사의 아름다운 언어에 의한 재현이라는 점에 있다면 이는 작가의 의도 여하를 떠나 읽는 이로 하여금 의문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혼불』에는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세시풍속을 비롯 유교적 질서에 부응하는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승의 세시풍속이 자세하다 싶을 정도의 천착의 묘사가 등장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서만은 그와 같은 면이 생략된 것이다. 심지어, ‘강호’가 절에 가서 ‘도환’으로부터 ‘사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은 100여 쪽이 넘는 분량에 이르고, 제4부 「어느 봄날의 꽃놀이, 화전가」는 20여 쪽에 이르는 자체가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혼불』 전체를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1회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면은 간과하고 소설 자체의 이미지만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차 읽을 경우에 이와 같은 의문이 감지된다고 할 것이다.

정작, 결혼은 탄생과 죽음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전도된 평가는 이들의 불행을 암시한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밤 효원은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다.

그러나 지금 그네는 혼자 앉아 있는 힘을 다하여 허리를 버티면서 무너질 것만 같은 몸을 견디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에 쥐가 나는 것 같았다. 한쪽이 지르르 저리거 시작하더니 그만 감각이 없어지는데, 주먹을 쥔 손이 힘없이 풀려 나간다. 손가락 끄트머리가 차게 식으면서 저희끼리 선뜻하게 부딪친다. 효원은 그럴수록 숨을 가슴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목에 힘을 모으고 턱을 안쪽으로 당겨 붙였다.

온몸의 감각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몸의 마디마디를 죄고

있는 띠들이 터져 나갈 것만 같다. 그렇지만 효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기어기 견디어 내고 있다. 그대로 앉아서 죽어버리길라도 할 태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만큼 분한 심정에 사무쳤던 것이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내 이 자리에서 콧 꼬꾸라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²⁵⁾

이미 효원에게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자기의 남편이 된 강모에게 한을 품게 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이 서린 피동적 의미의 ‘한’이 아닌 의도적인 한이 감춰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는 앞으로 이들이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날밤에 한을 품게 된 효원의 영향 탓이었을까. 첫날밤 신랑 강모의 꿈은 온통 ‘강실’이었다. 결국 ‘상피붙은 네놈’이라는 오명 속에 ‘덕석말이’로 피투성이가 되고 만다. 결국 이러한 꿈은 현실로 나타난다. ‘효원’의 자아에 깊이 숨어있는 ‘절망’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일깨워주고 있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효원에게는 한 집안의 여성가장으로 우뚝 서는 시작이며, 강모에게는 설자리를 잃은 유체가 없는 식민지 가장으로서의 시작인 것이다.

『혼불』에는 특이하게도 산 사람이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문중의 누이와 상피붙어 피로워하다 끝내 삶을 저버린 ‘강수’의 망혼제가 작품 속에 나타난다. 강수의 원혼을 달래는 굿과 영혼결혼식이 있던 날, 강모와 강실의 한이 얽혀든다. 한 편에서 이루어진 해원의 굿풀이가 이들에게 합원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²⁶⁾ 결국 산 사람의 결혼식과 대비되는 죽은 사람의 결혼식에서 새로운 한이 짝트고, 이들에게 절망을 심어 주는 또다른 계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강수’의 망혼제가 갖는 하나

25) 『혼불』 1권, pp.43~44.

26) 이정숙, 「해원의 신탁행위 『혼불』론」, 『현대소설연구』 제6호(심포지엄소설학회, 1997), p.414.

의 내면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허나, 강수 그놈이 죽게 된 것은 참으로 맹랑한 일이옵니다.”

“맹랑하다니……?”

“젊은 나이에 사내놈이 그래 부모를 남겨 두고, 병신 아우를 앓혀놓고, 병도 많고 많은데.”

까지 말하던 이기채는 차마

“상사(相思)로 병을 얻어 그에 죽게 생겼다니, 이런 못난 놈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상피(相避)로 말입니다.”

하고 말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어린 나이의 조카뻘이지만 이미 온전치 못하여 목숨을 버리다시피 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탓이었다.

하지만 청암부인이라고 해서 그간 오랫동안 떠돌던 소문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상사불견(相思不見)이면 어찌 병인들 나지 않으리.”²⁷⁾

강모와 강실이의 운명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는 듯한 이 대목에서 대화의 진실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이러한 강수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강수의 어머니 동녘골매의 청에 의해 동녘골양반의 결단으로 명혼을 하게 된다.

귀신 중에서도 가장 원통한 귀신은 처녀와 총각인 채로 죽은 몽달귀신이었으니, 이는 객사하거나, 전쟁터에서 살을 맞아 죽은 귀신, 혹은 물에 빠지고 불에 타죽은 그 어느 귀신보다도 처절하게 원한이 많아, 무서운 복수심으로 이 승에 남은 사람들에게 붙어 괴롭힌다고 하였다. 그것도 가족들을.

그래서 가족들은 아 가없고도 무서운 원혼들을 위하여, 영혼의 배필을 찾아 성대히 혼례를 치러주고 부부인연을 맺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디 해로하고 저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함께 떠나, 가족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복을 주어 집안이 태평해지기를 바랐다.²⁸⁾

27) 『혼불』 2권, pp.119~120.

강수의 망혼제는 위의 예문과 같은 이유로 시작된다. 일반인들의 결혼이 가족구성의 결속과 번영, 새로운 가족구조의 구성 등의 의미를 지닌다면 망혼제는 해원의 의식을 갖는 것이다.

순리로만 본다면야 누가 이것을 귀신들의 혼례라고 하겠는가. 범절을 다한 반가의 대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푸라기 혼신들의 허수아비 움직임.²⁹⁾

망혼제를 바라보는 강모의 마음속에 새겨진 '허수아비'는 이미 자신이었다. 대신에 혼행 갔을 때, 첫날밤의 바람벽에 태산처럼 우뚝했던 그네의 모습, 그것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늘한 냉기를 뿜으며 강모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다.³⁰⁾

강수와 이루어진 어느 낯선 처자와의 영혼 결혼식이 강모와 효원과의 결혼식과 다른 점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결혼식에 있을 따름이었다. '낯선 처자'는 영혼일 뿐이나 평생의 반려인 셈이지만, 강수에게는 영혼으로조차도 사모의 연을 잊지 못한 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효원에게도, '강실'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속 깊은 심원에서부터 가득한 강모에게는 '효원'이가 바로 그 '낯선 처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교호적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영원한 평화상태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언제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으로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거기에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와 절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과 연계된 '남'에 의한 한과 정이 녹아 흐를 때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그러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모습도 산 자의 평안함을 위

28) 『혼불』 2권, p.141.

29) 『혼불』 2권, p.150.

30) 『혼불』 2권, p.158.

한 것이라면³¹⁾ 산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일이야말로 절망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역설의 궤관이 되는 것이다.

4. 정령의 신화 그리고 삶-탄생

『혼불』에서 다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열개는 상당한 치밀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간의 죽음과 결혼에 이어지는 탄생의 의미가 『혼불』에서는 너무나 처연하게 묘사되고 있다. 여성이 중심축으로 지탱되고 있는 가문에서 새로운 탄생은 현재의 자아적 명분을 이미 넘어선다. 그만큼, 탄생은 죽음과 동렬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저 동경으로 갈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직 나이 어리고 학업에 전념할 때라, 아무래도 뜻한 대로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또 동경이 멀다 하나 강호형도 있고 요즘은 너나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낯선 곳만은 아닙니다.”³²⁾

청암부인과 율촌댁이 듣기에 강모의 이와 같은 말에는 손자로서, 자식으로서 큰 뜻과 기개가 담겨있는 희망의 언어가 아니라, 회환과 도피의 뉘그러로 들릴 뿐이다.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외연의 의미로서가 아닌 내포의 메타포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강모의 이러한 청에 대하여 청암부인은 짤막하게 대답한다.

31) '사람들은, 강수의 원혼이 어미에게 씌인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굶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동녘골댁도 죽고 말리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네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잘 마시지도 못했다. 결국 동녘골양반은, 쓰잘데없는 헛것이라고 필쩍 뉘던 일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 오늘 밤의 명혼(冥婚)이었다. 『혼불』 2권, pp.140~141.

32) 『혼불』 1권, p.254.

(……) 드디어 청암부인은 짙막하게 대답했다.

“아들만 낳아라. 그러고 떠나거라.”³³⁾

청암부인의 소원은 아들이었다. 울촌택과 이기채 소원도 아들이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가문의 대를 잇고, 수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아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강모가 효원의 방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청암부인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이미 할머니는 손자의 결심을 막을 요량은 없었다. 단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가문 최대의 기원인 아들 하나만을 간절히 원할 뿐이다. 천지신령도 오늘을 맞추어 놓았다.

청암부인은 이미 효원에게 흡월정(吸月精)까지도 시켜 놓았었다.³⁴⁾

손자를 얻기 위해 청암부인은 효원에게 흡월정을³⁵⁾ 시켜 놓은 것이다. 이 흡월정의 장면은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그만큼, 자연의 힘을 빌어서라도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염원이 간절한 것이 된다.³⁶⁾ 이찌

33) 『혼불』 1권, p.254.

34) 『혼불』 1권, p.254.

35) ‘흡월정이란, 음력으로 초월월부터 보름까지 닷새동안 달이 만삭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오를 때, 갓 떠오른 달을 맞바라보고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 우주의 음기(陰氣)를 생성해 주는 달의 기운을 몸 속으로 빨아들이는 일을 말했다. 그렇게 하면 여인의 몸에 달의 음기가 흡수되어 혈력이 차 오른다는 것이다. 저 무궁한 우주를 한 점 달에 응축시켜 몸 속으로 흡인하는 힘, 그 혈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혼불』 1권, p.255.

36) 『문학의 상징·주제사전』에 의하면, 달을 통하여 분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신화적이며 매우 단순한 생각에서보다 달은 동기로 하여 가져온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거기에는 모든 것과 모든 삶의 기원으로서의 여성적이며 지극히 힘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있는 것이다. 아지자·올리비에리·스트크릭,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사전』(청하, 1989), pp.239~240. 한국인에게도 달은 우주관·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생활습속 등에 걸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태양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중대한 것이다. 햇빛과는 달

가문의 사람들이 새로운 탄생을 원하는 것은 후세를 다져 놓음으로써 현재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즉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전하여 가문을 수성하려는 의지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계기로 효원은 대를 이을 아들 철재가 태어나는 것이다. 철재의 탄생은 매안이씨 가문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견주어, 『혼불』에는 또 다른 탄생이 예고된다. 거명골 춘복이 지닌 자신에게도 양반의 핏줄을 이을 자식에 대한 간절함은 강실에 대한 想思와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거명골의 천민으로 양반가문의 처지를 사랑하게 되는 춘복은 『혼불』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캐릭터이다. 춘복의 한 생명을 기다리는 염원은 효원의 흠 월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매안 위에 떠 있던 해가 진 것이다. 매안으로 해가 졌으니 이제 거명골 동산으로 달이 뜰 참이었다.

“소원을 빌라.”

고 공배는 아까 말했다.

소원.

(중략)

달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오.

리 달빛은 어둠과 함께 있다. 달빛은 어둠을 몰아 낸다기보다는 어둠의 일부를 밝히면서 어둠의 심지이거나 하듯이 어둠 한가운데서 어둠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달은 또한 매우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데, 달은 죽음을 아주 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비록 죽음에 든다 해도 다만 일시 죽음에 들 뿐, 재생과 회생을 거듭하는 ‘죽음 있는 영속하는 생명’,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특히, 달의 결영과 바다의 조수의 관계가 알려지고, 또 달의 결영의 주기와 여성의 경도의 주기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달이 지닌 생명력의 상징성은 한층 더 강화된다. 달과 물과 여성이 더불어서 생명력 상징의 삼위일체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6권, pp.138~145 참조.

부디 매안에 작은아씨, 내 사람 되게 해 주시오.

(중략)

그 달은 바로 강실이의 얼굴이었다.

(중략)

춘복이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다.

(중략)

이 떠오르는 달은 그냥 단순한 정월 대보름달이 아니라 그것이 곧 강실이일 것만 같았다.

(중략)

그래서 그는 온몸의 기운을 눈에 모았다. 그 눈에 핏발이 섰다.

바로 그때였다.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어두운 하늘이 트이면서, 황금 눈썹같이 눈부신 달의 정수리가 능선 위로 가느다랗게 비치었다.

“달 봤다야.”

(중략)

달을 차지하고 만 것이다.

춘복이는 숨이 막혀 지레 가슴이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

“작은아씨를 내 사람 되게 해 주시오.”

복받치는 이 말을 속에 삼키고 달을 향하여 그는 어금니를 욱물었다.³⁷⁾

달을 차지하기 위해 춘복은 누구보다도 먼저 동산에 올라간다.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원을 빌고자 달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부터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그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여 마치 달에게 빌기라도 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 같았던 것이다. 춘복에게 달은 구원의 신이다. 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이다. 생각, 행동, 소원까지도 달에게 의탁한 것이다. 천민인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아니, 자신의 자식만은 천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강실이를 통해 자신의 자식을 낳고 싶은 것이었다.

37) 『혼불』 5권, pp.174~177.

“왜 양반은 양반으로만 살아야능가는 내비두고, 어찌 상놈은 한번 상놈으로
나면 내리내리 대물려서 상놈으로만 살아야능가. 그 이야기 좀 해 보시오.”

그 얼굴에 대고 물었다.

나는 상놈 껍데기를 벗고 싶다.

나도 사람뎡이로 살고 싶다.

나는 절대로 상놈 자식은 안 낳랑게.

아아, 작은아씨, 내 자식 하나 낳아 주시오.

달님, 작은아씨를 내 여자가 되게 해 주시오.

작은 아씨가 부디 내 자식 하나만 낳게 해 주시오.

춘복이는 달을 향하여 뻗쳐 올린 두 팔을 모두어 내리며 그대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깊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였다.³⁸⁾

이러한 춘복이의 염원은 그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은 근원적인 문제,
곧 자신의 신분문제에 기원을 둔다. 강실이에 대한 사모의 염원까지 상
승작용을 일으켜 급기야 ‘피의 순수’를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춘복이의 ‘망월’은 분명 효원의 ‘흙월정’과는 그 의미가 다르
다. 그러나 자연의 정령이 숨어 있는 ‘달’이란 매개체에 의지하여 새로운
탄생을 고대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에는 그 시초를 달리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이다.

5. 결 론

『혼불』 전편에 흐르는 가족사로 형상화하는 풍속 즉 죽음, 결혼, 탄생
의 의미를 논의해 보았다.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꾸준히 반복되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한 가족의 일상사, 가족 구성원들의 얽히고 설킨 관
계의 사랑과 증오·갈등, 가족과 가문의 영고성쇠, 그리고 여기서 생겨난
민간신앙과 속신·종교·관념 등이 일정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의례는 일종의

38) 『혼불』 5권, pp.181~182.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을 고취시켜 가족 공동체의 정신적인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며, 그들이 속한 더 큰 집단의 틀을 세우는 자양분의 역할³⁹⁾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곧 또 다른 가족사소설의 중심 내용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바로 가족사를 소설화하는 하나의 창작이론이기도 하다. 가족사소설에서 중심에 자리 잡는 한 가족의 삶의 이야기는 어느 새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흘러 그대로 주변의 삶이 됨으로써 전체에서 차지하는 한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주제의 선택이 되어 서사에서의 리얼리즘을 확보시키는 용이한 방법이 된다.⁴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은 하나의 사회가 되어 어느 것이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 현상과 상관 관계를 맺는 구성을 취하게 됨으로써 가족사소설 특유의 성격을 보유하고, 나아가 비록 한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곧 한 가족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이 확대·전이되는 문화의 고리를 맺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순환의 실마리는 탄생-육성-쇠퇴-소멸의 과정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가족사소설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을 함께 포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순환의 실마리인 탄생-육성-쇠퇴-소멸은 죽음·결혼·탄생이라는 풍속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결속해 주며 가족사를 형성해 주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때문에 인간이 가족을 구성한 이래로 인간들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고, 인간의 중요한 행위인 전승의 풍속사

39) Yi-ling Ru, *op.cit.*, q.v., pp.12~13.

40) René Wellek, "The Concept of Realism in Literary Scholarship," *In Concept of Criticism*, Yale Univ. Press, 1963, pp.22 2~255 ; George Becker, *Introduction to Documents of Modern Literary Realism*, Princeton Univ. Press, 1963, pp.3~38. qq.v.

로 끊임이 후세대에게 전해주며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혼불』에서의 죽음은 청암부인의 죽음과 함께 거머골의 홍술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그리고 청암부인의 죽음은 종손부 허효원에 게로 그 녀이 옳아가 죽어도 죽지 않는 윤희의 고리를 형성한다. 핏줄의 보전과 가문의 순수성을 지속하기 위한 의미가 강한 『혼불』의 결혼은 불행을 암시하며, 그 불행 속에서 굳건히 서는 여성가장과 그 여성가장 때문에 부유하는 식민지 시대의 가장의 모습을 부각하는 결혼이다. 이에 비해 『혼불』에서의 탄생은 가족의 구성이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생명의 자양분으로,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고, 신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인간의 총체성이란 필연적으로 종합이다.⁴¹⁾ 『혼불』은 이렇게 삶의 모든 순환을 보여주면서 모든 작중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풍속에 엮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서사체에 잠재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논문

김열규, 「여성과 집에 관한 시론」, 『가와 가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집안내림 이야기로서 갖추고 있는 전혀 다른 개성-가문소설, 『미망』과 『혼불』을 중심으로」, 『문학사상』, 1997년 3월호.

김치수, 「두 개의 혼불-최명희와 『혼불』」, 『동서문학』, 1999년 봄호.

김현선, 「혼불-우주적 상상력의 총화」, 『문학사상』, 1997년 12월호.

백지연, 「핏줄의 서사, 혼 찾기의 지난함-『혼불』론」,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유지현, 「『혼불』에 나타난 복식의 의미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1) 장폴 사르트르, 정명환 옮김, 『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98), p.396.

- 문, 1998.
- 윤석달, 「한국 현대가족사소설의 서사형식과 인물유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티화,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 『혼불』에서의 여성의 운명」, 평택대 논문집 제9권, 1997.12.
- 이재선, 「한국문학의 생사관-죽음의 문학사」,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1989.
- , 「현대가족사소설의 전개」, 『현대한국소설사』, 흥성사, 1979.
- 이정숙, 「해원(海源)의 신탁행위-『혼불』론」, 『현대소설연구』 제6호, 심포지엄소설학회, 1997.6.
- 임현영, 「최명희 장편소설 『혼불』의 효원, 현명한 여인의 운명이 된 공방살」, 『시사월간 WIN』, 1997.9.
- 장미영, 「한국근대가족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장일구, 「소설텍스트의 연행해석학 시론」,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정호웅, 「박물관(博物誌)의 형식: 『혼불』, 최명희 저 『서평』, 『황해문화』 14, 1997.3.

단행본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박태상, 『한국 문학과 죽음』, 문학과지성사, 1994.
-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 신상성, 『한국 가족사소설 연구』, 경운출판사, 1992.
-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이인복, 『한국문학에 나타난 죽음의식의 사적 연구』, 열화당, 1987.
- 이재선,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1996.

번역서

- P. 아리에스, 이종민 역, 『죽음의 역사』, 동문선, 1998.
- 베르나르 포르, 김주경 역, 『동양종교와 죽음』, 영림카디널, 1997.
- 노베르트 엘리아스, 김수정 옮김, 『죽어가는 자의 고독』, (주)문학동네, 1998.
- 아지자·올리비에리·스트크릭, 장영수 옮김, 『문학의 상징·주제사전』, 청하, 1989.